

Youngeun News

# 동행

8월

2025년468호



 대만예수교  
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http://www.youngeun.or.kr)

**color** 2025 영은, 색을 입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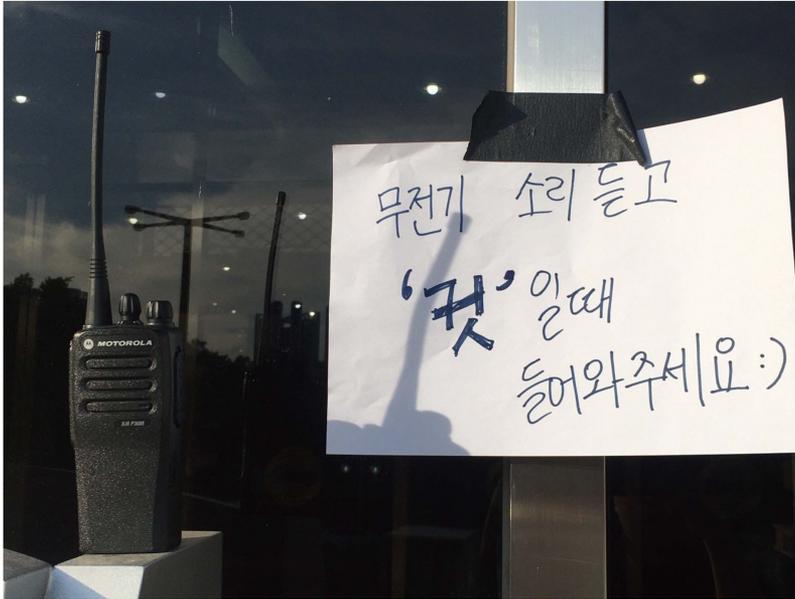


## 하나님 라인 안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컷(cut) 당해도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컷 당하면, 그건 영원한 탈락입니다.

외모나 스펙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중심은 반드시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컷 당하지 않기 위해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 하나님 라인 안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경멸하며 그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끊어질 것이니 그의 죄악이 그에게 미치리라.” (민수기 15:31) 

〈글 · 사진 : 서현이기자〉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 월간 동행 영은 홍보부

1984년 4월 27일 창간

발행일 제 468호 / 2025. 8. 3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전화. 02-2676-7171~2

월간 동행 E-mail. yemagazine@naver.com

발행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집인 김석진 장로

편집차장 김창원 안수집사  
서선이 권사

편집 서선이 김경원B 윤정림

기자 김명희C 서현이 이숙경

사진기자 허영준

디자인 디자인 샘

월간 동행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 CONTENTS

### 02 그림이 있는 풍경

하나님 라인 안에 있습니까? / 서현이 기자

### 04 생명의 말씀

습관의 정석, 점검하지 않는 습관 / 이승구 담임목사

### 07 믿고 알고 알고 믿고

튤립(TULIP), 진리 전쟁에서 피어난 은혜의 꽃 / 정성훈 목사

### 08 Color &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 홍세영 청년

### 09 웹진 동행

남선교회 수련회,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다 / 전용주 안수집사

### 10 영은소식

우리는 '행복한 교사' 입니다 / 이에리아 목사

“사랑하러 갑니다!” / 유준식(청년1부)

영아부 여름성경학교 / 한수진 집사(영아부 신에서)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 이민주 교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 이용원 교사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 박라운 어린이

제3지구 제238회 지구회, 영은교회에서 열리다 / 박정희 권사

### 21 칼럼 뼈뚫하게

나도 누군가에게는 / 이숙경 기자

### 22 슬기로운 교회생활

“선교와 사회적 섬김” / 이준희 목사

### 24 교회안내

영아부 여름성경학교

#### 2025년 「월간 동행」 사역자 모집

살롱!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 하심을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월간 동행과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월간 동행」에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월간 동행 이메일(yemagazine@naver.com)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편집회의 검토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습관의 정석, 점검하지 않는 습관 (고린도후서 13:5)



글 | 이승구 담임목사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는 은사와 사역이 풍성했지만, 내부는 분열, 타락, 불신 등으로 병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의식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후 13:5)**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지식적인 동의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이나 종교적 활동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뿌리내리고 있는가’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삶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계획, 인간 관계, 물질의 사용, 시간과 감정 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기준이 되는 것이며, 나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예수님과 연결 짓는 것입니다. 즉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언제나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기에 ‘믿음 안에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나는 지금도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 하고 계시는가?”, “내 신앙은 살아 있는가, 아니면 형식만 남은 껍데기인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 하거나 낙심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갈망, 곧 죽은 형식이 아닌 살아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이러한 점검은 영적인 긴장감을 주는 동시에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끄는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 ■ 점검하지 않는 습관의 위험

#### ① 위선

신앙생활은 ‘습관’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어느새 ‘형식’만 남고, 그 안의 ‘의미’와 ‘감격’을 잃게 되면, 그 신앙은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지적하신 바리새인들(마 7:3~5)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외형은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도와 금식, 십일조와 주일성수에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의 교만, 위선, 냉담함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문제만 지적하며 자기 의를 내세웠습니다.

오늘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면서도 자기 내면의 상태는 전혀 살피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만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감격도 회개도 사라진 채 앉아 있는 껍데기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외식’이라 하셨고, “먼저 네 눈 속의 들보를 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점검 없는 신앙은 결국 위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 ② 무너짐

대부분의 무너짐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듯했지만, 안에서는 오래 전부터 조용히 금이 가고 있던 것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타협, 한 번의 하찮게 생각한 변명, 다음에 하려고 미뤘던 한 번의 게으름, 별일 아니라고 여긴 한 번의 무관심 등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게 됩니다.

말씀을 하루이틀 읽지 않아도, 당장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를 멈춰도 하루는 그냥 지나갑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도 큰일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위험합니다. 그 작은 영적 방치가 누적되면, 어느 순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마음, 말씀 앞에서 무감각해진 심령,

죄에 대해 아무런 민감함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거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마 7:27)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람과 비는 갑자기 몰아쳤지만, 집이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초가 약해졌고, 제대로 점검되거나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짐은 누적의 결과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침식된 신앙, 가볍게 흘려보낸 말씀, ‘나중에 하지 뭐’하며 미루었던 회개,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기도의 자리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견딜 수 없는 바람이 불 때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외부의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면의 방치와 침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 점검하는 습관 훈련하기

### ① 비취보기 훈련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 나니” (히 4:12)**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과거의 기록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삶과 내면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은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중심, 심지어 숨겨진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게 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스스로 보지 못했던 신앙의 상태, 그동안 외면했던 마음의 병, 회피했던 죄의 흔적들까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의 점검은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우리를 찌르고, 흔들고, 다시 살리는 말씀으로 자기 삶을 비춰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 영적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 ② 돌아보기 훈련

일상의 분주함은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영혼의 깊은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고요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 몇 분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지금 제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 139:23~24)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살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가장 정직하고 정확하다는 믿음으로부터 자신의 마음과 뜻과 동기를 살피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도 삶이 분주하고 소란할수록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며 나를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 점검하는 신앙으로

영적인 점검이 없을 때 죄는 작게 스며들다가 어느 순간 큰 위기를 만듭니다.

영적인 점검 없이 지나치는 ‘작은 죄’,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타협, ‘지금은 바쁘니까’ 하는 미루는 마음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습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비춰 보는 습관,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며 나를 돌아보는 습관을 통해 점검하는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튤립(TULIP), 진리 전쟁에서 피어난 은혜의 꽃



글 | 정성훈 목사

16세기 후반, 네덜란드 개혁신교회에 야곱 아르미니우스라는 신학자가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그는 칼뱅주의의 전통적인 예정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나님의 예정보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더 강조하여 기존의 교회와 신학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사후,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지지자들은 1610년에 ‘항의서 (Remonstrance)’라는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안에는 자신들의 다섯 가지 신학적 입장을 제시합니다.

- 1. 인간의 자유의지 인정 2. 조건적 선택 3. 예수님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 4.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 가능 5. 구원은 상실될 수도 있음

이 문서는 네덜란드 개혁신교회의 칼뱅주의 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에 네덜란드 개혁신교회는 도르트총회(Synod of Dort)를 열어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게 됩니다. 이 총회는 네덜란드 뿐 아니라 영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여러 개혁신교회의 대표들이 모였던 아주 중요한 모임이었습니다.

이 총회에서 각국의 개혁신교회 대표들이 정리한 신학적 입장이 바로 칼뱅주의의 5대 강령입니다. 이후 다섯 가지 핵심 교리가 영어권 신학자들에 의해 TULIP이라는 약자로 요약되었습니다.

- T :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 U :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 L :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 I :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 P :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이 강령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어떤 행동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수호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신학적 투쟁이 튤립(TULIP)이라는 아름다운 진리의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보면 자칫 우리의 노력과 헌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땀 흘려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눈물로 기도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정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10)**

여름 사역을 열심히 감당할 때 사람의 일들을 자꾸 생각하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묵상한다면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도르트총회와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아름다운 진리의 꽃을 피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

Sola Gratia! 오직 은혜!



##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글 | 홍세영 청년

2008년에 음영부에 편입되었으며, 2009년부터 음영부 내 공식적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여호수아 찬양대는 음영부에 속해 있는 동시에 교육 2부 소속으로, 청년부 예배 때 찬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찬양대는 음영부의 다른 찬양대와 같이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팀의 체계를 갖추었으며,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선물을 얻어낸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한다는 의미에서 찬양대의 이름을 '여호수아'라 명명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청년부의 성장과 함께 여호수아 찬양대 역시 규모가 증가하여 운영을 위해 많은 분께서 찬양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김민식 목사님과 허영준, 강민관 교사 그리고 찬양대장으로 섬기시는 최윤석 안수집사님께서 찬양대의 교육과 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총무로 섬기시는 홍희선 청년을 비롯한 6명의 청년이 임원으로서 찬양대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함께하는 장현수 지휘자님과 여호수아와 같이 열정이 가득한 30명의 대원이 함께 찬양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활동으로는 청년부 예배와 청년 헌신 예배에서 예배 찬양을 담당하고 있으며, 음영부의 일원으로서 음영부 헌신 예배 때 참여하여 함께 특별 찬양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는 다른 청년들과 함께 칸타타를 준비하여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으며, 그 외에도 자체적인 아웃팅을 통해 대원들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남선교회 수련회,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다

-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잠긴 두 날의 동행 -



글 | 전용주 안수집사

영은교회 남선교회는 지난 7월 11일(금)과 12일(토), 이틀간의 수련회를 통해 말씀과 찬양,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40여 명의 남선교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교제하고 믿음을 나누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수련회의 시작은 금요일 저녁 금요찬양예배로 열렸습니다. 예배를 앞두고 회원들은 두 시간 전부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찬양을 함께 준비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영은찬양단의 뜨거운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의 문이 열렸고, 이승훈 장로님의 기도, 전용주 안수집사의 성경봉독(여호수아 24:14~24), 남선교회 일동의 특별 찬양이 이어지며 예배의 감동을 더했습니다.

정성훈 목사님께서 “남선교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도전해 주셨고, 모든 순서는 연합중보기도로 마무리되며 성령의 임재 안에서 깊은 은혜가 흘렀습니다.

토요일 아침, 다시 모인 회원들은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승훈 장로님의 인도로 부른 찬양은 평안과 감동을 안겨주었고, 이어진 기도 시간에는 국가와 민족, 가정과 일터, 병든 자들과 개인의 간구를 놓고 각자가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감사, 중보로 채워진 이 기도회는 함께하는 이들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회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남선교회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단단히 하나 되었고, 기도로 서로를 세우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동행**

# 우리는 ‘행복한 교사’입니다

- 영은교회 교육1부, 교사가 행복한 이유 -



글 | 이에리아 목사

2025년 7월 13일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헌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올해 교사헌신예배 주제는 ‘행복한 교사’였고, 교육1부의 모든 교사들은 한 마음으로 ‘우리는 교사이기에 행복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교사가 되어 왜 행복한지 각 부서 선생님들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사로서 행복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3

### 유치부 이진 교사

"유치부 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아이들을 통해 순수한 믿음을 배우며 제 믿음도 자라납니다. 다양한 아이들을 통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교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합니다. 아이들의 예배와 질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느낍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교사로서 행복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 4

### 유년부 윤덕영 교사

"유년부 사역은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말씀을 통해 사명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디도서 말씀은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위로가 되었고, 말씀 위에 설 때 진정한 행복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에 기반한 섬김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줍니다."

## 5

### 초등부 조성은 교사

"초등부 교사로서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지켜 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음을 깨닫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은 교사의 신앙도 회복하게 하며, 공동체의 따뜻함 속에서 함께 성장합니다.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체가 은혜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안에 있음에 큰 감사를 느낍니다."

## 1

### 영아부 서유진 교사

"영아부 교사로서 가장 순수한 시기의 아이들과 함께하며,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고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아이들의 찬양과 기도 속에서 진정한 감동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아이들은 찬양과 울동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 가고, 교사는 그 모든 '처음'을 함께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 처음의 순간들이 교사에게 큰 보람과 기쁨을 줍니다."

## 2

### 유아부 정현희 교사

"유아부 교사로 15년간 섬기며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낍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인사와 기도는 교사에게 큰 감동과 감사를 안겨줍니다. 아이들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나누며, 그 마음이 성장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사로서의 삶이 곧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6** 소년부 김미진 교사

"소년부 교사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이 큰 기쁨입니다.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사랑을 나누며 참된 삶의 의미를 교사로서 누리고 있습니다."

**8** 중등부 허혜은 교사

"중등부 교사로 섬기며 바쁜 삶 속에서 잃었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의 만남은 믿음을 새롭게 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기도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책임감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이어지고, 때 순간이 선물 같은 은혜로 다가옵니다."

**7** 꿈자람부 정보경 교사

"꿈자람부 교사로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찬양과 울동을 통해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사랑이 큰 힘이 되며, 아이들의 질문과 순수한 믿음은 제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합니다. 교사를 통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고, 교제 속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9** 고등부 전유진 교사

"고등부 교사로서 고등학교 시절의 신앙을 기억하며 아이들과 예배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이 큰 은혜입니다.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헌신, 공동체의 사랑 속에서 참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교사 자신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행복한 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은교회 교육부 교사들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교사의 사명을 행복한 마음으로 잘 감당해 내겠습니다. 



# “사랑하러 갑니다!” - 청년부 말레이시아 단기선교 -



글 | 유준식 (청년1부)



쿠칭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말레이시아 선교팀 '말로하'와 구용회 선교사 가족(앞줄 좌, 구용회 선교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김민식 목사님, 박희자 권사, 강민관 선생과 18명의 청년이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칭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타인을 향한 사랑이 메마르고 서로에게 큰 관심이 없는 세상 속에서 공허한 마음으로 지내다 “사랑하러 갑니다” (요한 20:21)라는 주제로 선교를 준비하게 된 나는 굉장히 설레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선교의 시작과 끝까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번 선교의 주제인 “사랑하러 갑니다”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을 따라, ‘사랑하러 말레이시아로 가자’는 의미다. 즉 ‘말레이시

아로 사랑하러 갑니다’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우리 팀 이름을 ‘말레이시아’와 ‘알로하’(사랑)를 합친 ‘말로하’로 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말레이시아 쿠칭에 도착하며 선교가 시작되었다. 도착 후 다음날 BEM TSM교회에서 주일을 보냈다.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뜨겁게 찬양하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지만, 나는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 ■ 월요일 : 울루아굽 마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골 캄퐁마을 4곳에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순회하는 사역이었다. 월요일, 굽이굽이 비포장도로를 달려 도착한 울루아굽마을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다. 놀라며 안으로 들어가자 더 놀랄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현지인들이 준비해 주신 웰컴티와 음식들이 환경에 억눌렸던 내 마음의 변화를 주는 감동의 불씨가 되었다.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파스함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그분들의 눈빛과 말, 행동에서는 우리를 향한 환영과 사랑이 전해져 너무나 감사했다. 이 감격으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두고 전심으로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났다. 마을 분들은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안 계셔서

말이 통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어의 장벽이라는 것은 없구나’를 느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고 싶어지는 순간이었다.

■ 화요일 : 슬란잔 마을

화요일, 슬란잔 마을을 방문했다. 동일하게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표정을 써가면서 대화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한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예배드렸다.

특히 마을 분들이 예배가 끝난 후 우리에게 축복송을 불러주었다. 사역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나?’라는 의문이 축복송을 듣는 가운데 ‘잘하고 있다!’라는 격려와 울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로하팀에게 현지 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너무 감사했다.

■ 수요일 : 세마와 마을

수요일, 세마와 마을에서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팀원들의 배려로 사역을 잠시 쉬게 되었다. 그 속에서 우리 팀원들에게 미안했고 사랑을 하러 왔는데, 계속 받기만 하는 것 같은 마음에 불편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팀원들을 통해 나에게 사랑을 알려 주셨다. 더운 날씨에 힘들텐데 쓰러져있는 나를 향해 씩 웃으며 격려해 주는 우리 팀원들, 계속 약 챙겨주시고 옆에서 날 지켜주시는 권사님을 보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날 위해 헌신해 주시는 팀원들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음에 너무 기뻐다.



예배 시작 전 마을 이장 가정에서 환영사를 하는 이장



세마와 마을에서 사역 후 마을 성도와 말로하팀



### ■ 목요일 : 뚜바 마을

마지막으로 뚜바 마을에 갔다. 뚜바 마을은 마을 내에 학교가 있을 정도로 크고 시설도 많이 구비 되어 있어 당연히 교회 시설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뚜바는 다른 마을들과 달리 교회가 없었다. 10년 전에 세워졌지만 부서져 있었다.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교회 재건축에 주민들이 능동적이지 않아 교회가 그저 방치되고 있었다. 가장 좋은 마을에 살고 있고 가장 많은 분이 모여 살지만 뚜바 마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하나님이 마지막 사역지를 뚜바로 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말레이시아, 이 땅을 잊지 말라’는 명령으로 느껴졌다. 말레이시아는 수많은 무슬림이 살지만, 우리가 간 쿠칭 땅은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릴 정도로 말레이시아에서 유일하게 복음이 전해진 지역이다.

하지만 쿠칭에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점점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구용회 선교사님과 현지 목사님들이 전해 주셨다. 우리 말로하팀은 교회를 위해 더더욱 힘써 기도했다. 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찬양의 가사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임을 확신했다.

“사랑하러 갑니다”라는 주제로 떠난 이번 선교에서 오히려 나는 사랑을 배우고 왔다. 항상 마을 분들이 나에게 다가와 주셨고, 하나님께서도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또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다. 나의 선교여행은 끝났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 **복행**



뚜바 마을에서 예배사역을 마치고 축복기도

## 제51회 전국장로수련회를 다녀와서



글 | 김석진 장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에서 주최한 제51회 전국장로수련회가 “우리 다시 세상의 빛으로 (사 60:1)” 라는 주제로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69개 노회에서 약 3,000명의 장로가 참석하였고, 우리 영은교회는 은퇴장로 7명과 시무장로 11명이 참석하였다.

본 수련회는 개회, 수요, 폐회 예배를 포함하여 특강 7회, 은혜의 시간 3회, 영성 집회 2회, C채널이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까지 2박 3일간 빼곡한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수련회 내내 영성 회복,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역할, 신앙의 정체성 확보, 장로의 사명 등을 강조하였다.

영성 말씀과 특화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사례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능교회 강인구 목사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게 하면서 연단하셨는데 절대 순종하는 백성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으며, 사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히 지워졌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장로님들은 “절대순종”과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두 기둥 위에 믿음을 세울 것을 당부하였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은 “귀한 그릇 준비”라는 주제로 말씀하셨다. 목사님은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느냐로 결정되므로, 제국국가 마인드를 가지고 큰 용량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정신으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청주서남교회 장승권 목사님은 젊은 세대가 기대하는 교회로 목회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미래세대에 전폭적인 투자를 하여 키즈카페, 아기학교, 스터디카페, 글램핑장, 섬나도 정원 열매나무 등을 운영하면서 교인 자녀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아이들까지 교회시설을 마음껏 이용하게 하여 주일 교회학교 출석 학생 수가 2,500명 규모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고 전하였다. 또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섬나도(섬김, 나눔, 도움)신앙을 설명하였다.

주안대학원대학교 유근재 총장님은 “미래교회와 사역의 변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유 총장님은 국내 유일의 선교전문대학원으로 선교사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도록 재교육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및 해외선교지에서 외국인들에게 적합한 목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였다. **동행**



영은교회 은퇴 및 시무장로

# '예수님 믿는 아이 Jump! Jump!'

- 영아부 여름성경학교 소감문 -



글 | 한수진 집사

파란 바다로 변한 영아부실을 보며 아이와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영아부에 들어왔습니다. 성경학교가 시작하기 전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맛있는 간식을 먹고 다양한 놀잇감으로 놀이하는 시간 덕분에 아이가 긴장을 풀며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아이 Jump! Jump!' 주제로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며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불안하고 걱정 많았던 우리들의 삶이 변화하여 평안과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다고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아이와 함께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외쳐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를 양육하는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무지개 물고기 연극을 보았습니다. 연극에 집중하고 반응하는 아기들의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공과 공부를 마치고, 마지막 특별활동 시간은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표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파란색 종이 파도풀 속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종이를 날리는 것이 재미있었는지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종이 파도풀에서 예수님의 사랑인 하트 조명을 찾아보고, 또 불을 꺼 하트 조명을 켜보는 활동에서 그 불빛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예뻐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부모님들도 함께 웃고 참여하며 성경학교 첫째 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성경학교 둘째 날, 예배를 드리고 영아부를 가득 메운 파라슈트에서 엄마, 아빠, 아이 모두 파라슈트 흔들고 하트 풍선을 하나 날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김밥 재료로 온 가족이 김밥을 만들고 먹으며 즐거운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는 끝났습니다.

성경학교를 마치고 저희 아이에게 "예수님 믿는 아이"라고 말하면 "점프 점프"라고 웃으며 말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예수님'이라는 단어에 기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 감사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와 성경학교 경험은 아이가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아이의 삶 속에 스며 들어가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참여한 이번 성경학교가 너무 귀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매번 힘쓰시고 기도하시는 영아부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아부 성경학교를 안전하고 즐겁게 마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예수님 믿는 아이 Jump! Jump!'

-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소감문 -



글 | 이민주 교사

2025년 7월 19일(토)~20일(주일)까지 영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아이 Jump! Jump!” 라는 주제로 이틀 동안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배우고, 교사로서 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영상을 보며 꾸준히 연습하고 참여하는 모습에서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기뻐 뛰며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교사인 저의 부족했던 모습을 반성하게 하였습니다. 몸치인 저는 아이들과 함께 울동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출퇴근길과 시간을 내어 영상을 보며 연습하는 시간은 너무 귀하고 값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은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여 집중하는 모습, 작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 폴짝폴짝 뛰며 찬양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의 크기와 진지함에 비해 나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명 친구들은 기도 중에 “아멘!” 을 외치며 기쁨과 확신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 모습은 소문자 “i(아이)” 와 대문자 “I(어른)” 의 믿음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믿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저를 다시 일깨워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성경학교인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며 순수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학교 준비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가까이서 보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쁜 일정을 쪼개어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기도회 시간을 갖고 서로 격려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사랑이었습니다. 특히, ‘성령의 날개 만들기’ 와 같은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며, 그 헌신적인 시간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선생님들이 힘들면 아이들에게 최고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더 겸손하고 사랑의 교사가 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점프하여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는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프로그램이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경학교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유아부 성경학교는 아이들 뿐 아니라 교사들도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 '예수님 믿는 아이 Jump! Jump!'

-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소감문 -



글 | 이용원 교사

유독 더웠던 여름. 하지만 그만큼 더 은혜로웠던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예수님 믿는 아이(I)~ Jump! Jump!" 아이들의 이 외침이 아직도 귀에 남아 맴돕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는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총 3번의 연극에서는 한달간의 피나는 연습(?)과 학부모님들의 열연으로 아이들에게 큰 웃음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개의 코너로 진행된 주제활동에서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만들기와 활동으로 그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식사시간을 통해 오후에 있을 활동들을 위한 에너지 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학습에서는 목사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찬양 페스티벌에서는 아이들이 뛰며 기뻐 찬양하는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물놀이와 맛있는 간식들로 여름성경학교 첫째날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날 부모님과 함께하는 파송예배를 위해 아침부터 부모님들과 아이들로 유치부 예배실이 가득 찼습니다. 특별히 파송 예배에서는 학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아이들이 학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 그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치부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며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한달전부터 중보로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평일, 토요일, 주일을 가리지 않고 나와 준비하고 연습한 모든 선생님들, 맛있는 간식과 식사를 준비해주신 선생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향과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선생님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를 기획하고 준비한 목사님과 임원 선생님들까지 모두가 모여 최선을 다했기에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은혜로운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끄시며 우릴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동행**



# '예수님 믿는 아이 Jump! Jump!'

-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소감문 -



글 | 박라운 어린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한 유년부 2학년 박라운입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저에게 정말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찬양과 율동으로 시작했는데, 열심히 찬양하고 신나게 율동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정말 기뻐졌어요.

재밌는 말씀도 듣고, 공과 공부도 했는데요!

특히 “가스펠 탐험대와 함께하는 부흥 대작전”이라는 말씀을 통해 ‘부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김찬영 전도사님이 재미있게 전해주셔서 귀에 더욱 쏙쏙 들어왔어요. 점심으로는 불고기, 돈가스, 오므라이스 등 제가 좋아하는 메뉴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좋았어요. 간식은 피자, 치킨, 찰옥수수, 시원한 화채였답니다. 정말 여러모로 맛있는 시간이었어요.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정성껏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진짜 진짜 최고는... 바로 옥상 물놀이!!! 햇빛이 쨍쨍했지만, 전도사님, 선생님들,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물놀이를 해서 하나도 덥지 않았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번 성경학교에는 제 친한 친구를 초대하기도 했는데요, 친구가 우리 교회 유년부 성경학교가 정말 좋았다고 말해서 뿌듯했어요. 초대했을 때 ‘성경학교에 꼭 가보고 싶다’고 말해줬던 친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주신 것 같았어요.

끝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해 주신 유년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성경학교도 벌써 기다려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 제3지구 제238회 지구회, 영은교회에서 열리다

## - 영등포노회 여전도회연합회 -



글 | 박정희 권사(여전도협의회 회장)



1부 경건회

지난 7월 17일 목요일, 제3지구 제238회 지구회를 영은교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교와 교육, 봉사의 정신으로 여전도회 협의회 임원들과 많은 여전도회 회원이 기쁜 마음과 섬김으로 지구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폭염과 폭우로 마음이 쓰였지만, 마음의 평강도 주셨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동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3지구 지구회에 속한 12개 교회의 여전도회 회원들이 영은교회 본당에서 1부 경건회와 2부 회무처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1부 경건회에서 이승구 담임 목사님께서 “친절과 긍휼이 있는 곳”(엡 4:32)이란 제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2부 회무처리리는 지구장 김나희 권사(주향한교회)의 사회로 회계보고와 지회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하신 이승구 목사님과 찬양 인도를 하신 한진구 목사

님과 유오디아 찬양팀, 선교부장 강대희 장로님, 여전도회 연합찬양대, 오카라파의 오카리나 연주, 남도교회 험스바 중창단에게 감사드립니다. 연합회 임원들과 지구회 임원들, 실행위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지구회 예배에서는 영은교회 여전도회 연합 찬양대가 독일 본회퍼 목사님의 순교 80주년을 기념하여 그가 감옥에서 작사한 “선한 능력으로”를 찬양했습니다.

1절은 독일어로 찬양하였는데, 차재명 권사님이 솔로를 맡아 주셨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1945년 4월 9일, 39세의 나이로 처형되었습니다. 올해가 본회퍼 목사 순교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전도회 회원들도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순교의 각오로 헌신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8월 지구회는 휴회이고, 9월은 영문교회에서 열립니다. (9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 나도 누군가에게는

글 | 이숙경 기자

‘나도 누군가에게는 나쁜놈일 수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사실 ‘나쁜놈’이 아닌 다른 표현을 사용하지만, 지면상 순화해 보았다) 역지사지해보고 타인에게 너그러우라는 의미인데, 사실 알면서도 ‘그렇지만 날 힘들게 한 저 놈이 더 나쁜놈일걸?’ 하는 심보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사람은 양면을 지닌 동전과 같아서 나쁜 면과 좋은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담배를 피우고 쌍욕을 하며 길을 걷다가도, 넘어진 아이를 보면 일으켜 세워주고 길바닥에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성경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은 훌륭한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성미도 급하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기도 했다. 다윗은 또 어떨까. 후대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사도행전13:22)’이라고 기억하지만, 사실은 부하의 아내를 강간한 범죄자다. 하나님이 정말 딱 열가지, 이것만이라도 좀 지키라고 알려주신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인데, 그것조차 못 지켰다. 솔직히 뭐 이런 놈이 있나 싶다.

특히 요셉이 참 밍상이다. 요셉은 어린이 뮤지컬에서 주인공으로 자주 뽑히는 만큼, 훌륭한 인물로 묘사된다. 형들에게 따돌림 당했지만 용서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도 정직할 줄 알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기다린 끝에 애굽 총리가 된 인물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만한 금쪽이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아버지인 야곱에서부터 시작된다. 형의

장자권을 야비하게 빼앗아갔던 야곱은, 자식 중에 유독 요셉을 편애했다. (내가 이래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을 안 믿는다.) 외중에 요셉은 편애받는 것을 형들에게 자랑하거나, 형들이 저에게 조아리는 것을 비유하는 꿈 이야기로 형들을 열받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눈치가 없을 수가!

따지고 보면 하나같이 문제 인물들이고 금쪽이들이다. 속이 터진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후대에 본받을만한 인물로 거론이 된다. 왜일까.

나는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날 예뻐하시니 다 용서해주시겠지.’ 라는 안일한 의미는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때 회개할 줄 알았고, 아프고 꺾일 때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자신의 약한 면을 인정한 채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길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 애썼다. 도달하는 길이 직선이 아닌 곡선이라 해도,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 한 분이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나쁜놈일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진실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갈구하고, 나아가야 한다.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 우리 안에서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더 많이 찾아내고, 그것을 갈고 닦아야 한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나쁜놈이긴 하겠지만, 어제보다는 내일 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 가까워진 ‘나쁜놈’이 될 수는 있을 테니까. 

## “선교와 사회적 섬김”



글 | 이준희 목사

선교는 단순히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선교와 전도는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선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다 :

### 1) 사도행전 1장 8절 관점 :

선교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현하는 행위이다.

### 2) 하나님의 통치 관점 :

가난하고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풍성한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사회적 섬김은 예수님의 낮아짐의 태도에서 시작되는 섬김의 행위이다. 세속적 관점의 사회적 섬김이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교회의 사회적 섬김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대상은 인간을 포함한 전 피조세계다.

마태복음 25장 31~46절에서 예수님이 “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를 돌본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신 것처럼, 사회적 섬김은 신앙생활의 본질이며 복음 선포와 함께 실천해야 할 책임이다.

그렇다면 선교와 사회적 섬김은 어떤 관계인가?

선교와 사회적 섬김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다. 선교는 복음전파이고, 사회적 섬김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복음전파의 방법이 사회적 섬김이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행동으로 하는 복음 전파이다. 특히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가 낮은 현 상황에서는 백 마디 말보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의 행동이 더욱 중요하다.

선교와 사회적 섬김의 대상은 예수님이 주목하신 사람들, 즉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이다. 누가복음 10장의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처럼, 참된 이웃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며,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응답하는 사람이다. 사회적 섬김의 현장은 세상이다. 교회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섬기려면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섬겨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갈 때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라는 두 개념이 충돌한다. 복음전도는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고 사회참여는 개인의 구원보다 사회의 부조리로 신음하는 이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복음전도와 사회참여 사이에서 복음전도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그렇지만 복음전도와 사회참여 둘 다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때는 약자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했을 때였다. 한국 개신교가 1960~70년대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나, 이후 더 큰 예배당과 많은 교인 모으기에 치중하면서 사회적 약자 배려가 약화 되었다.

결과적으로 1980년 이후 성장이 멈추고 대형 교회로의 교인 수평이동과 소형 교회의 소멸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제라도 복음전도와 사회참여 이 둘의 균형을 이루어 선교와 사회적 섬김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가 직면한 신뢰도 위기는 선교와 사회적 섬김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셨듯이 주변의 아픈 이들과 힘겨워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로 변화해야 한다.

선교와 사회적 섬김은 결국 행하는 것이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드래요  
 둘이는 서로 서로 사랑을 했드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음음음 모르는 척했드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드래요  
 시집간 날 첫날밤에 한없이 울었드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음음음 안그런 척했드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드래요  
 장가간 날 첫날밤에 달 보고 울었드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음음음 고까짓 것 했드래요  
 고까짓거 했드래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면서 서로 사랑했다.

그러나 결말은 어찌 되었는가? 각자 다른 사람에게 장가 가고 시집갔다.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또 있을까? 그런데 비극적인 결말은 본인들이 자초한 결과였다. 서로가 마음이 있는데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교가 갑돌이와 같이 마음만 가지면 안 된다. 우리의 섬김이 갑순이 같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서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28:19~20)고 하신다. 마음만 품지 말고 행동할 것을 명하셨다.

선교와 사회적 섬김은 세상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선교와 사회적 섬김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비취야 한다. 우리 영은교회가 선교와 사회적 섬김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만 동시에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영아부 여름성경학교

▶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 로 목 사 허남기  
 담 임 목 사 이승구  
 부 목 사 최광주 이준희 이예리야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교 육 목 사 전수현  
 전 도 사 장미애 김영락 김찬영  
 교 육 전 도 사 나진희 박선민 황금성 황예찬 손예지  
 정희수  
 파 송 선 교 사 구용회 백현이  
 협 동 목 사 소병찬 김규리

▶ 영은교회 예배시간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본 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본 당
수요일예배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본 당
금요심야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본 당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1층 영아부실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소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꿈자람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2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고등부	주일 오전 9: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청년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 영은교회 찾아오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월간동행 e-mail : yemagazine@naver.com